

‘고난 받는 종’ 예수

-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사 52:13-53:12)에 대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적 해석(*Interpretatio Christiana*) -

박성호*

들어가는 말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에게 또는 예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사법적 살인 이상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 예수를 그와 같은 치욕스러운 죽음에 내던지신 일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예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교회는 - 이미 잘 알려진 대로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오늘날 구약성서라 부르는 ‘성경’(聖經) 속에서 발견했다. 즉,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¹⁾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초대교회가 다른 시각으로 구약성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예수가 지상의 사역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이미 메시아로 생각했는가의 문제에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초대교회에서의 기독교론 형성이 메시아 됨에 대한 예수 자신의 인식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로 이미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제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행 8:30)²⁾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마차에 타고 있던 에디오피아 고관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의 물음이다. 이에 고관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31절)고 답한다. 고관의 요청으로 마차에 함께 앉게 된 빌립은 그가 이사야 53장 7-8절을 읽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내시의 질문이 이어진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34절) - 이사야 53장³⁾을 읽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을 당한다는 생각은 이미 구약성서에서도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는 중요한 표상이자 열쇠를 발견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무렵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제2이사야의 예언은 500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이었다.⁴⁾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및 죽음에 대한 이해

곳곳에서 보여 준다(예: 마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자들의 몰이해; 요 2:22; 12:16). 이 주제에 대해서는 Martin Hengel, “Jesus der Messias Israels,” M. Hengel and A. M. Schwemer, *Der messianische Anspruch Jesu und die Anfänge der Christologie: Vier Studien*, WUNT 138 (Tübingen: Mohr Siebeck, 2003; org. ed. 2001), 1-80을 보라.

- 2) 본문에 인용되는 구절들의 번역은 『개역개정』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다른 번역본(『새번역』과 『공동개정』)도 함께 고려된다.
- 3) 아래에서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는 주로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나 ‘노래’로 표기되며, 실제 본문은 52:13-53:12에 해당한다.
- 4)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야웨의 종의 노래’가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본문은 물론 아니다. 신약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다양한 모티브와 표상들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게 십자가 해석의 기원에 대한 견해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이사야 53장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을 유일한 해석의 열쇠로서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신약성서의 가장 이른 문서들을 기록한 바울의 경우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Sung-Ho Park,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im Geri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tellvertretung und Kreuzestod Jesu bei Paulus*, WMANT 1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2015), 197-202을 보라.

와 관련해서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본래의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해석은 본래의 의미를 넘어 그 의미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새롭게 이해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구약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이 본문이 던져주는 본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해석의 단계를 보여주는 70인역)도 경우에 따라 함께 비교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70인역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 이로부터 초대교회의 기독교적 해석이 본문의

-
- 5) Martin Hengel, "Zur Wirkungsgeschichte von Jes 53 in vorchristlicher Zeit,"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75-76에 의하면, 이사야서의 헬라어 번역은 안티오쿠스 4세의 위협이 지나가고 마카비 항쟁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시기에 이루어졌다. 19:16-26와 같은 본문들은 그 장소가 이집트였음을 보여 주며, 오니아스 4세가 레온토폴리스에 성전을 지었던 때로 짐작된다. 구체적인 연대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소예언서의 번역 이후, 곧 선지자들의 예언이 종말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던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번역자는 이사야의 예언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시대 사건들과 관련하여 (임박한) 종말적 성취의 표시로서 해석했는데, 이것은 특히 히브리어 본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명료한 시제 사용에서 드러난다. 쿨란의 이사야서 사본들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번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창현, "쿨란의 이사야서 사본과 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20 (2007), 37-44; 송창현, "쿨란 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3): 쿨란의 고난 받는 메시아," 『성서와함께』 372 (2007), 98-99을 참조하라.
- 6) 초대교회가 읽고 해석했던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인가, 헬라어 본문인가? 신약성서에는 주로 70인역(LXX)이 인용되지만, 때로는 본문의 형태가 너무 자유로워서 70인역이 본래 대본인지 아니면 히브리어 본문(마소라 본문/MT)과 다른 히브리어 대본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예루살렘 처음교회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이 토대였다. 예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회당 예배에서 아람어로 된 번역본(타르굠)이 히브리어 본문과 아람어라는 일상언어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타르굠은 단순히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었고, 의역(Paraphrase)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 전통의 요소들이 번역과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반면, 헬라적 유대교에서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주로 사용되었다. 1세기 중반부터는 70인역의 사용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관철되었다. 이미 바울에게서 우리는 70인역의 폭넓은 사용을 목격한다. 누가와 히브리서 저자는 일관되게 70인역만 사용한다. 그러나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 이야기(행 6장)로 볼 때, 둘 사이에는 분명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승들은 뒤섞일 수 있었다. 신약성서에서 일반적으로 70인역의 사용과 해석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Ferdinand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3rd ed., UTB 3500 [Tübingen: Mohr

본래 의미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대교회가 기독교론을 정립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서술한 후, 교회가 우리의 구약성서에 해당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한 방식을 생각해 보고(1), 이 노래에 대한 개관과 주석을 통해 본문이 본래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2). 그리고 나서 이 노래가 보여주는 아웨의 종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및 십자가 죽음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3), 이 노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이 던져주는 의미 및 성서학과의 관계를 종합해 볼 것이다.

1. 기독교론과 기독교적 해석

1.1. 기독교론의 형성

예수를 메시야로 여기는 믿음과 이 믿음을 전하려는 제자들의 활동은 부활 예수의 현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전 15:5-7). 부활은 예수의 지상 사역의 절정을 이루며, 또한 십자가 이후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심어 주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지상 사역과 죽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부활이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인식되었고, 가장 오래된 공동체들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론적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전권과 사명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간 길 자체에 담긴 구원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일이었다.⁷⁾ 이 과정에서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증거가

Siebeck, 2011], 45-46), 따라서 초기에 기독교론을 양산해 낸 처음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된 이사가 53장의 본문을 주로 읽고 사용했는지는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7) Ferdinand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1: Die Vielfalt des Neuen Testaments*, 3rd ed., UTB 3500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29-132,

되었다(고전 15:3-5에서 두 번 사용되는 표현인 “성경대로” 참조). 즉 구약성서가 제시한 ‘약속’은 예수의 삶 및 사역과 함께 성취된 것으로 여겨졌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다메섹 사건 전에 처음교회⁸⁾에 비교적 형태를 갖춘 기독교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누가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행 9:18). 바울이 회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다메섹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했음을 보여 준다. 바울이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예수 신앙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의무 부과도 없이 세례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미 세례를 위한 제도화된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든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바울도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행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했다.⁹⁾ 바꿔 말하면,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던 날, 처음교회에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이미 완전히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예수의 죽음을 대략 기원후 30년으로, 바울의 회심을 대략 기원후 33년쯤으로 잡는다면, 기독교의 발전과정은 처음교회의 처음 2-3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¹⁰⁾ 이 기독교인이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되었다.

146-147.

8) 조경철, 『신약성서신학』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101의 설명처럼 “처음교회”와 “초대교회”는 엄밀히 구분된다. 전자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바울 이전의 교회를 말하고, 후자는 처음교회는 물론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까지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성이 요구될 때에만 “처음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그 외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초대교회”로 통일하기로 한다.

9) Martin Hengel and Anna M. Schwemer, *Paulus zwischen Damaskus und Antiochien: Die unbekannten Jahre des Apostels*, Mit einem Beitrag von Ernst Axel Knauf, WUNT 108 (Tübingen: Mohr Siebeck, 2000; org. ed. 1998), 72-74.

10) Ibid., 171.

1.2. 구약성서의 사용과 기독교적 해석

초대교회를 세우고 있는 기초들이 유대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저자들의 다수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초대교회가 처음 20년 동안 지리적으로 거의 팔레스틴과 시리아(+길리리아)로 제한되어 있었고, 시리아가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유대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고, 바울의 전세계적인 선교를 통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틴-시리아 위주의 초기 역사가 초대교회를 깊이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유대교 성서(=구약성서)를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¹¹⁾

예수와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형태와 분량을 가진 ‘구약성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 무엇보다 구속력이 있었던 것은 토라와 예언서와 시편으로서, 이것들이 ‘거룩한 책들’, 곧 ‘성경’(聖經)이었다. 신약성서는 이를 “율법과 선지자”(마 5:17; 7:12; 11:13; 22:40; 눅 16:16; 요 1:45; 행 13:15; 24:14; 28:23; 롬 3:21) 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눅 24:44)이라는 말로 표현한다.¹²⁾ 즉 초대교회는 토라와 예언서와 시편으로 된 구약성서의 기본형태를 ‘성경’으로 전제한다. 개별 구절들의 집중도와 빈도, 본문 형태 그리고 변형 및 새로운 해석의 관철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서들의 유효성과 구속력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¹³⁾ 내용적으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초대교회 선포와 신학의 결정

11) Martin Hengel and Anna M. Schwemer, *Jesus und das Judentum*, Geschichte des frühen Christentums 1 (Tübingen: Mohr Siebeck, 2007), 21-26.

12)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44-45.

13) Ibid., 48.

적인 토대였다.¹⁴⁾ 그러나 유대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성서 본문들의 유사성과 구속력을 전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들을 다른 방식으로 읽고 해석했다.¹⁵⁾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¹⁶⁾

한편으로 구약성서는 예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사건과 사실들(예: 지상 활약, 죽음, 부활, 오순절 사건, 이미 시작된 구원에 대한 확신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중심적인 해석범주를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구약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구약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그분의 활동이지만,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를 넘어서 암시되는 요소들이었고,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행위로부터 이해 및 해석되었다. 말하자면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범주와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해석되었다.¹⁷⁾ 이로써 구약성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Interpretatio Christiana)¹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4) Ibid., 49-50, 64-110. 초기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의 모든 갈등 및 논쟁에도 불구하고 먼저 유대교 내부의 한 그룹/운동으로 여겨지고,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둘 사이의 완전한 분리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기원후 1세기 말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5) 이 새로운 이해가 영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음은 신약성서 곳곳에서 분명하게 언급된다(요 5:31-40; 15:26-27; 고후 3:14-17; 뱀전 1:10-12).

16) 그 외에 눅 24:25-27, 44-48; 행 18:27-28; 고후 3:7-18도 참조. 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행 13:27; 고후 3:12 이하에서는 모세의 얼굴 수건으로 표현) 바른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기 때문에(행 28:27) 그들이 '성경'을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17)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50.

18) '기독교적 해석'(Interpretatio Christiana)은 본래 문화나 역사적 사실들과 관련된 비기독교적 요소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독교적 해석’을 거친 구절들이나 본문¹⁹⁾이 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지, 반대로 변형되었다면 어느 정도로 의미의 변화나 확장이 일어났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구약의 구절 혹은 단락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신약에서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충분한 의미를 제공해주는지, 왜 신약의 저자(들)이 바로 이 본문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는 이와 관련하여 좋은 예를 보여 준다.²⁰⁾ 신약성서의 여러 곳(롬

‘이교도들’(pagan people)을 기독교화할 목적으로 그들의 종교-문화적 활동, 신념과 심상 등을 기독교화된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대표적인 기독교적 해석의 예로는 로마의 동지 축제(Dies Natalis Solis Invicti)가 성탄절로 변형된 일이나 그리스의 목양신 판(Pan)이 기독교의 악마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본보기가 된 것들을 수 있다. 바울과 같은 기독교 저자들을 통한 구약성서 전승의 재해석도 여기에 속한다.

- 19) 초대교회의 구약성서 사용방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해석의 양태는 다양하며, 알레고리, 유형론과 구속사적 해석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116-128 참조). 그 외에 신약의 구약 사용과 관련해서는 Dietrich-Alex Koch, *Die Schrift als Zeuge des Evangeliums: Untersuchungen zur Verwendung und zum Verständnis der Schrift bei Paulus*, BHTh 69 (Tübingen: Mohr, 1986); 스티브 모이세, 『신약의 구약 사용 입문: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에 대한 해석』, 김주원 역 (서울: CLC, 2011)을 참조하라.
- 20) NTG²⁸의 부록(IV. Loci citati vel allegati)에 따르면,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는 신약성서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직접적으로 인용된다(사 52:15→롬 15:21 / 사 53:1→요 12:38; 롬 10:16 / 사 53:4→마 8:17; 벰전 2:24 / 사 53:5→벰전 2:24 / 사 53:6→벰전 2:25 / 사 53:7-8→행 8:32-33 / 사 53:9→벰전 2:22; 계 14:5 / 사 53:12→눅 22:37; 벰전 2:24). 요한계시록 14:5에서의 직접 인용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Hans W. Wolff, *Jesaja 53 im Urchristentum*, Mit einer Einführung von Peter Stuhlmacher, 4th ed. (Giessen-Basel: Brunnen Verlag, 1984), 105; Peter Stuhlmacher, “Jes 53 in den Evangelien und in der Apostelgeschichte,”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03 각주 36번; Wolfgang Kraus, “Jesaja 53 LXX im frühen Christentum – eine Überprüfung,” W. Kraus, hg., *Beiträge zur urchristlichen Theologiegeschichte*, BZNW 16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151는 이곳에 인용되는 구절이 사 53:9가 아니라 습 3:13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4:25; 고전 15:3-5; 히 9:28; 벧전 2:22-25 등)에 나타나는 이 노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은 부활 이후 신앙고백의 대표적인 열매이다.²¹⁾ 부활 예수를 만났던 증인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고난 받는 '아웨의 종의 노래'를 예수와 연결시켰고, 그 노래로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²²⁾

이사야 53장이 간접적으로 인용되거나 암시되고 있는 경우는 36회다(① 복음서와 사도행전 20회[사 52:13→요 3:14; 행 3:13 / 사 53:3→막 9:12 / 사 53:6→마 15:24 / 사 53:7→마 26:63; 막 14:49, 61; 요 1:29 / 53:8→눅 5:35 / 사 53:10-12→마 20:28; 막 10:45; 눅 22:19-20 / 사 53:11→행 3:13 / 사 53:11-12→막 14:24 / 사 53:12→마 26:28; 27:38; 막 14:49; 15:27; 눅 11:22; 23:34], ② 서신 14회[사 52:15→고전 2:9 / 사 53:3→빌 2:7 / 사 53:4-5→요일 3:5 / 사 53:5→골 1:20 / 사 53:5-6→고전 15:3 / 사 53:8-9→고전 15:3 / 사 53:9→요일 3:5 / 사 53:11→롬 5:19; 빌 2:7 / 사 53:11-12→롬 5:15; 요일 3:5 / 사 53:12→롬 4:25; 고전 15:3; 히 9:28]와 ③ 계시록 2회[사 53:7→계 5:6, 9]). 그 외에 신약성서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42:1-4)의 빈도수는 직접 인용 1회와 간접 인용/암시 3회, 두 번째 종의 노래(49:1-6)는 각각 1회와 14회, 세 번째 종의 노래(50:4-9)는 간접 인용/암시만 7회다. 구절 제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급된 헬라이어 신약성서의 부록을 보라. '아웨의 종의 노래(들)'에 대한 신약성서에서의 외적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사야서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사야서는 신약성서에서 시편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책이다. 신약에서 이사야 53장이 직접 인용되는 구절들을 조사한 후, 인용 횟수가 적은 것(7회로 계산)을 두고 그 본문이 초대교회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Kenneth D. Litwak, "The Use of Quotations from Isaiah 52:13-53:12 in the New Testament," *JETS* 26 (1983), 385-394의 결론은 그 본문의 간접 인용과 암시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약하다.

- 21) 이와 관련해서 Stuhlmacher, "Jes 53 in den Evangelien und in der Apostelgeschichte," 93-105와 Otfried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07-127는 각각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들에 나타나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정리하고 있다. 요약된 형태로는 김창주, "유대교와 이사야 53장: 의인의 대속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까?" 「신학사상」 121 (2003), 105-111; Eckhard Plümacher, "Bibel: II. Die Heiligen Schriften des Judentums im Urchristentum," *TRE* 6 (1980), 16-19를 참조하라.
- 22) 그러나 이 해석은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예언에 대한 응답이자 반응이었다. Stuhlmacher, "Jes 53 in den Evangelien und

2.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52:13-53:12)

2.1. 도입

이사야서에서 ‘야웨의 종의 노래’라 불리는 본문들은 모두 네 곳(42:1-4; 49:1-6; 50:4-9; 52:13-53:12)²³⁾이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네 번째 노래에 국한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의 고난을 대신 받는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약성서 전체를 통틀어 독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개별 인물(예: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욥 등)이 다른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거나²⁴⁾ 천상적 존재인 천사의 임무 중 하나가 인간을 위한 중보기도임²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그 인물이나 천사가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한다. 즉 중보기도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견고한 유대관계가 있음은 늘 확인되지만,

in der Apostelgeschichte,” 93-94, 104-105에 의하면, 그 뿌리는 이미 파송과 죽음에 대한 예수 자신의 이해 속에 놓여 있다. 예수가 이사야 43:3-4와 53:11-12를 자신의 수난 및 십자가의 길과 연결시켰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야웨의 종’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대한 초기 유대교의 메시아적 해석(1QIsa^a; 4QapocrLevi^{a-b}? ar[=4Q540-541]; 에디오피아 예누 38:2; 46:4; 62:3)을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이어갔다는 것이다. 초기 유대교에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적으로 해석된 것과 관련해서는 Hengel, “Zur Wirkungsgeschichte von Jes 53 in vorchristlicher Zeit,” 49-91을 보라. 행엘(80-85)은 메시아적 해석의 초기 단계를 보여 주는 70인역이 야웨의 종을 오니아스 3세로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한다.

23) 이미 오래 전에 Bernhard Duhm, *Das Buch Jesaja*, 5th ed., HK 3. Abt. Die prophetischen Bücher Vol.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14-19, 311, 367, 379, 393이 이를 언급하였다. 각각의 노래들의 길이(또는 범위)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주석서들을 보라.

24) 창 18:16-33; 20:1-18; 출 32:11-14, 30-34; 삼상 7:9-10; 12:18-19; 15:11; 욥 42:8-9.

25) 욥 5:1; 33:23; 에디오피아 예누 9:3; 15:2; 40:6; 47:2; 89:76; 99:3; 104:1; 토비트 3:16; 12:12, 15; 성서고대사 15:5; 시리아 바룩 12:5; 레위의 유언 3:5, 7; 5:6-7; 그 외 계 8:3도 참조.

그것을 대리적인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²⁶⁾ 초기 유대교 문서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소한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은 상대적으로 늦게 기록된 마카비2서(특히 7장)나 마카비4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첨가 부분이다.²⁷⁾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신약성서에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야웨의 종'²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 특히 종의 대리적 고난과

26) 보통 구약성서에서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과에 따른 결과/형벌을 담당해야 한다는 확신과 달리,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에서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과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107-110는 נַשְׂא 동사와 כָּבַל 동사가 각각 죄 개념(נַשְׂא + חַטָּא 12ba / כָּבַל + עוֹנָת 11bβ) 또는 죄를 가리키는 은유(נַשְׂא + חַלִּים 4aα / כָּבַל + מַכְאִיִּם 4aβ)와 연결되는 용법을 통해서 설명한다.

27) 마카비2서 7장은 일곱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의 순교이야기이다. 무죄한 이들의 대속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당하는 순교의 이유는 율법 준수였으며(2, 8-9, 11, 30, 37절), 18절과 32절에서는 그들 자신 또한 유죄하다고 고백한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의 중보기도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깊은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리적 고난이나 대속을 논하기는 어렵다. 반면, 마카비 4서의 경우는 2서와 다르다. 여기서는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이 당하는 죽음이 명백하게 제의적 의미의 대속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4서는 2서보다 훨씬 늦게 기록되었고(기원후 1-2세기 전환기), 해석의 역사와 관련해서 한 단계 진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마소라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다니엘서 3:23과 3:24 사이에 첨가되어 있는 부분(『공동개정』에 따르면 24-90절, 따라서 마소라 본문상의 24절 이하는 91절 이하에서 계속됨)은 70인역에만 들어 있으며, 기원전 165-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왕의 태도에 집중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과 달리, 헬라어 본문은 순교자 또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태도와 운명에 무게중심을 둔다. 특히 전반부에 해당하는 아사랴(아벳느고)의 기도(25-45절)는 민족을 이끌 합법적인 지도자가 없고 제의 또한 불가능해진 상황을 슬퍼하면서(38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39-40절). 여기서 이사야 53장 이후 처음으로 속죄를 위한 대리적인 죽음이 비로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 쿰란의 4Q285에 죽임 당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으나, 본문 해석의 결과 죽임 당한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Sung-Ho Park,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im Geri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tellvertretung und Kreuzestod Jesu bei Paulus*, 181-183; 송창현, "쿰란 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3): 쿰란의 고난 받는 메시아," 93-96을 참조하라.

28) '야웨의 종'의 정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집합적 해석(=이스라엘/시온): Burkard M. Zapff, *Jesaja: 40-55*,

NEB.AT 36 (Würzburg: Echter Verlag, 2001), 322-323; Ernst Haag, “Stellvertretung und Sühne nach Jesaja 53,” *TThZ* 105 (1996), 12-13; Lothar Ruppert, “«Mein Knecht, der gerechte, macht die Vielen gerecht, und ihre Verschuldungen – er trägt sie»(Jes 53:11): Universales Heil durch das stellvertretende Strafleiden des Gottesknechtes?” *BZ* 40 (1996), 10-14; Erhard Blum, “Der leidende Gottesknecht von Jes 53: Eine kompositionelle Deutung,” S. Gehrig-S. Seiler, hg., *Gottes Wahrnehmungen* (Stuttgart: Kohlhammer, 2009), 145-155. ② 메시아적(혹은 종말론적) 해석: Johann Fischer, *Das Buch Isaias: 2. Teil: Kapitel 40-66*, HSAT 7(1. Abt./2. Teil) (Bonn: Hanstein, 1939), 14-15, 130; Ralf Albrecht, “Sühne und Stellvertretung in Jesaja 53,” *JETH* 12 (1998), 14-15; 한정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II: 종의 노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94-196(“예수 그리스도”); 송병현, 『(엑스포지벤테리) 이사야 I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3쇄]), 335(“고난당하는 메시아”). ③ 개별적 해석: 이 해석은 다시 여러 개별인물로 나누어진다. (a) 예언자 제2이사야: Georg Fohrer, *Das Buch Jesaja: Vol.3: Kapitel 40-66*, ZBK.AT 19:3 (Zürich-Stuttgart: Theologischer Verlag, 1964), 160; Georg Fohrer,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P. Rieger, hg., *Das Kreuz Jesu: Theologische Überlegungen*, Forum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8-10; Werner Grimm and Kurt Dittert, *Deuterjesaja: Deutung – Wirkung – Gegenwart*,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Calwer Verlag, 1990), 423-424; Joseph Blenkinsopp, *Isaiah 40-55*, AncB 19A (NewYork et al.: Doubleday, 2000), 356; Josef Scharbert, *Heilsmittler im Alten Testament und im Alten Orient*, QD 23/24 (Freiburg-Basel-Wien: Herder, 1964), 202-205, 210-211; Josef Blank,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 53),” R. Mahoney, hg., *Studien zur biblischen Theologie*, SBAB 13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2), 40-41; Hans-Jürgen Hermisson, “Israel und der Gottesknecht bei Deuterjesaja,” J. Barthel and H. Jauss and K. Koenen, hg.,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Gesammelte Aufsätze*, FA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11-219; Bernd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33-36; Bernd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SBS 165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7), 75-78. (b) 모세: Klaus Baltzer, *Deutero-Jesaja*, KAT 10/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9), 496. (c) 다리우스와 스룹바벨: John D. W. Watts, *Isaiah 34-66*, 2nd ed., WBC 25 (Nashville et al.: Nelson, 2005), 733-734, 783-785. (d) 여호야긴: Michael

희생이 예수의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⁹⁾ 첫 번째 단락(52:13-15)은 종에 대한 야웨의 말씀, 곧 밀바닥까지 내려갔던 자기의 종이 높이 올려질 것이라는 야웨의 선언을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단락(53:1-11a α)³⁰⁾은 종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다루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야웨가 아니라 “우리”이다. 세 번째 단락(53:11a β -12)에서는 다시 야웨가 화자이며³¹⁾, 높여진 종의 모습이 그려진다.³²⁾ 말하자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D. Goulder, “Behold My Servant Jehoiachin,” *VT* 52 (2002), 175-190. (c) 예레미야: Katharine J. Dell, “The Suffering Servant of Deutero-Isaiah: Jeremiah Revisited,” K. J. Dell and G. Davies and Y. V. Koh, eds., *Genesis, Isaiah and Psalms: A Festschrift to Honour Professor John Emerton for His Eightieth Birthday*, VT.S 135 (Leiden-Boston: Brill, 2010), 119-134.

- 29) 절의 구분은 히브리어 본문(BHS)을 따른다. 한글 번역에서 어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한 절이 상-하 구분을 넘어서 더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문과 각주에서 절 구분은 양서의 표기법을 따랐다.
- 30) 11a절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까지를 말한다. 11a α 절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를 가리키며, 여기에 “자기 지식으로”(יָדָעוֹ)가 포함된다.
- 31) 70인역에서는 이미 8절의 전환 묘사와 함께 야웨의 진술이 다시 이어진다.
- 32)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와 같이 구분한다(정중호, 『이사야 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20-221; 박종수, 『바빌론 포로기와 이사야: 이사야 40-55장 주석』 [서울: 한들출판사, 2004], 442-444; Claus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206-207; Grimm and Dittert, *Deuterjesaja: Deutung-Wirkung-Gegenwart*, 406-407; Peter Höffke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NSK.AT 18: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8], 164; Zapff, *Jesaja: 40-55*, 324;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36-38;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78-81; Odil H. Steck,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ZAW* 97 [1985], 38; Haag, “Stellvertretung und Sühne nach Jesaja 53,” 3-5; Ruppert, “«Mein Knecht, der gerechte, macht die Vielen gerecht, und ihre Verschuldungen – er trägt sie»[Jes 53:11]: Universales Heil durch das stellvertretende Strafleiden des Gottesknechtes?” 3-4; Hans-Jürgen Hermisson,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m deuterjesajanischen Kontext,” J. Barthel and

‘우리 진술’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야웨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2.2. ‘야웨 진술’(52:13-15)

첫 번째 ‘야웨 진술’은 ‘야웨의 종’이 야웨를 통해 미래에 거두게 될 성과에 대해서 말한다.³³⁾ 종이 행동하리라는 말(13절)은 그가 지금까지 전혀 성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종의 비천한 상태는 그의 (겉)모습이 흉측했다는 것으로만 간략히 묘사된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³⁴⁾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14절), 이는 학대

H. Jauss and K. Koenen, hg.,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Gesammelte Aufsätze*, FA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29; Sebastian Grätz, “Die unglaubliche Botschaft: Erwägungen zum vierten Lied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SJOT* 18 [2004], 193-194). 이때 마소라 본문상의 11aβ절을 11b절에 포함시켜 단락 구분이 11a절과 11b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반면, Horst D. Preuß, *Deuterjesaja: Eine Einführung in seine Botscha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97-99와 Blenkinsopp, *Isaiah 40-55*, 344-346, 349은 “자기 지식으로”(יָדָעַתִּי)라는 전치사구를 두 번째 야웨 진술에 포함시키며, 한글 번역 성경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도 이 구분을 따르고 있다.

- 33) 네 번째 노래는 야웨의 종이 자기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를 묻는 세 번째 노래(50:4-9)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31-33, 36;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73-75, 78).
- 34) “많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이 전한 메시지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야웨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Fohrer, *Das Buch Jesaja: Vol. 3: Kapitel 40-66*, 161-162; Fohrer,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14; F. Duane Lindsey,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BS* 139 [1982], 317; Steck,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40; Ruppert, “«Mein Knecht, der gerechte, macht die Vielen gerecht, und ihre Verschuldungen – er trägt sie»[Jes 53:11]: Universales Heil durch das stellvertretende Strafleiden des Gottesknechtes?” 10-11). 그들이 ‘우리

와 멀리서 인해서 그의 모습이 전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53:2-3). 하지만 야웨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신다. 그토록 상했던 모습의 종의 한없이 높아질 것이다. 그의 흥취한 모습만큼이나 그의 높아진 모습 역시 “나라들”과 “왕들”³⁵⁾을 놀라게 하여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15b 절).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과 “아직 듣지 못한 것”의 정확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종이 죽음과 복권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향한 야웨의 계획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후의 서술을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다.³⁶⁾

2.3. ‘우리 진술’(53:1-11aα)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표현이 ‘우리 진술’을 첫 번째 ‘야웨 진술’과

진술’의 주체이다(Steck,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39-41;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37;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80; Adrian Schenker, *Knecht und Lamm Gottes [Jesaja 53]: Übernahme von Schuld im Horizont der Gottesknechtslieder*, SBS 19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1], 70, 72, 76; Hermisson,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m deuterocesajanischen Kontext,” 232).

35) Grimm and Dittert, *Deuterocesaja: Deutung-Wirkung-Gegenwart*, 409-410는 “나라들”과 “왕들”을 이방세계 전체로 본다. 반면, 14절의 “많은 사람”을 15절의 “많은”(참조 한글 번역에서는 『새번역』[“많은”]과 『공동개정』[“만(방)"]만이 제시)과 동일시하는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209는 “나라들”과 “왕들”을 이방세계가 아니라 인류의 넓이(“나라들”)와 높이(“왕들”)를 위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36) Fischer, *Das Buch Isaias: 2. Teil: Kapitel 40-66*, 132;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210. 그런 점에서 14절과 15절은 종의 낮아짐(과거의 사건)과 높아짐(미래의 사건)을 잘 대비시키고 있다(박종수, 『바빌론 포로기와 이사야: 이사야 40-55장 주석』, 442-443, 445-446). 박종수는 야웨의 종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놀랄만한 새로운 일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본다.

연결시킨다. 새로운 화자인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42:24; 59:12 이하; 63:7-64:11 참조).³⁷⁾ 이들은 종의 일생, 특히 낮아짐에서 높여짐에 이르는 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두 눈 앞에서 벌어진 일은 자신들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이자 이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전파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로써 종이 겪은 고난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음이 암시되기도 한다.

이미 종의 유년시절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다. 그는 계속 자랐지만,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주목시킬 만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2절). 그의 무덤에 관한 언급(9절)을 함께 고려하면, 그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나 특정기간 동안 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전체가 고난과 병과 이쁨으로 점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육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 하나였고, 한 인물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짐작하게 해 주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야웨의 종’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를 야웨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낸다.³⁸⁾ 그러나 그의 비천한 상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3절의 내용은 그가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멸시했고, 심지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 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고대에서 이것은 더 이상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37) 박종수, 『바빌론 포로기와 이사야: 이사야 40-55장 주석』, 443, 447;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37;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80-81; Steck,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39-40; Lindsey,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1982), 313, 321; Hermisson,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m deuterocesajanischen Kontext,” 231-232.

38) 박종수, 『바빌론 포로기와 이사야: 이사야 40-55장 주석』, 448;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211; Lindsey,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1982), 323-324.

것과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었다(욥 30:10; 시 31:11; 38:11; 88:8 참조).³⁹⁾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⁴⁰⁾ 하였노라”(4절)는 진술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과거 시각(4b절)에서 볼 때, 종이 겪은 아픔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마땅한 벌이었다. 그러나 ‘야웨 진술’(52:13-15)의 전파로 인해 변화가 시작되었고, ‘소위소치관계’(所爲所值關係)⁴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오래되고 잘못된 관점(4b절)으로부터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바르고 새로운 관점(4a절)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삶에서 갱신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으로는 해방의 시작이다. 여기서 종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짊어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4a절). 그의 자발성은 특히 야웨가 짊어지우신 고난을 떠맡는 인내에서 나타난다. 이로써 동시에 대리적인 죄과의 전가

39) 이 부분은 언어적으로 탄식시편들과의 접촉점을 보여 준다: “떨사를 받아 ... 버림 받았으며” → 시 22:6; 119:22; “간교” → 시 38:17; 69:26(욥 33:19와 애 3:1도 참조); “질고” → 시 41:3;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 시 22:24. 이와 같은 접촉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종의 고난이 여기서 문자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들은 고난에 대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이다(시 22:12-18; 30:1-3; 31:9-13; 38:1-8; 69:13-15 등).

40)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3절의 표현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Duhm, *Das Buch Jesaja*, 397-398, 399은 이것을 4b절(창 12:17; 출 11:1; 왕상 8:37-38; 욥 19:21; 시 39:10; 89:32; 대하 26:20; 특히 시 73:14 참조)과 연결시키면서 나병으로 해석한다(레 13:22, 32; 왕하 15:5). 종의 “찔림”과 “상함”(5절)은 나병의 효과 또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4b절의 표현이 반드시 나병에 의해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를 가리키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Fischer, *Das Buch Isaias. 2. Teil: Kapitel 40-66*, 133-134의 반박은 옳다. “질고”(כָּאֵב, 3절)와 관련해서도 ‘(질)병’ 대신에 일반적 의미의 ‘고난’이 더 적합하다. 특히 종이 “곤욕을 당하여”(7절)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7-9절)은 나병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보여 준다.

41) Tun-Ergehen-Zusammenhang(=Connection between deeds and consequences)의 번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상기, “시편 73편: 소위소치관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연구」 55 (2009), 9 각주 2번 참조.

또는 대리적인 고난의 특징이 부각된다. 종은 단지 다른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스스로 짊어진다. 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부당하게 생각될 경우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상황⁴²⁾을 생각하면, 종의 자발성과 침묵은 매우 특이하다(7절도 참조).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진술은 종의 고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묘사이다(5a절). 무죄한 종이 유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것은 대리적인 고난이었다.⁴³⁾ 이제 소위소치관계에 따른 옛 확신이 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당사자들은 종이 당한 운명이 바로 자기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 종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진 채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으며, 본래 죄인이었던 그들은 반대로 “평화”를 누리고 “나움”을 받았다(5b절). 다시 말해, 그의 대리적인 고난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⁴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표현은 이기주의, 무지와 무력감으로 점철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 준다(6a절; 56:11;

42) 하나님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출 21:20-22; 신 24:14-15; 대하 24:22; 욥 9:32-35; 13:20-28; 시 4:1; 43:1; 82:8을 보라(그 외 창 4:10; 합 2:11도 참조). 저주의 형태를 띤 에레미야의 기도(렘 18:21-23)도 참조하라.

43)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이사야 II』, 345-346; Fohrer,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26-27; Albrecht, “Sühne und Stellvertretung in Jesaja 53,” 15; Fischer, *Das Buch Isaias: 2. Teil: Kapitel 40-66*, 134(아래 인용): “이것이 구약성서의 고난 철학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고난시편들이나 욥기나 전도서는 물론이요, 그 밖의 어떤 이방 철학자에게서도 고난의 운명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와 같은 뛰어난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때 이것이 제의적인 속죄/대속의 고난이 아니라 비제의적인 대리적 고난이라는 Fredrik Hägglund, *Isaiah 53 in the Light of Homecoming after Exile*, FAT II/3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56-61의 지적은 옳다. 제의적 대속과 비제의적 대리는 엄연히 다르다.

44) Kraus, “Jesaja 53 LXX im frühen Christentum – eine Überprüfung,” 160는 전치사 *διὰ*가 원인을 나타낸다는 이유에서 5절(70인역)이 야웨의 종의 대리적 고난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5b절의 언급이 담고 있는 대리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그 외 고전 13:5; 빌 2:4, 21도 참조). 사람마다 각자 자기 길을 감으로써 야웨를 대적했다. “우리는 다”가 예외 없는 인간의 유죄한 실존을 가리킨다면, “우리 모두”는 종의 대리적인 고난이 일으킨 무제한적인 효과를 암시한다. 여기서 야웨가 “우리 모두의 죄악⁴⁵⁾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진술(6b 절)이 눈에 띄는데, 이로써 처음으로 야웨가 종이 당한 고난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웨에 의해 야기된 이 고난이 제의적 대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어디에서도 나타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⁴⁶⁾

고난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7절)은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반복적인 언급(7a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어”)와 7b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을 통해 특별히 강조된다. 침묵은 종이 자신에게 닥친 불의와 부당한 고난을 짊어지는 독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그가 고발과 저주, 보복과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우리”를 용서한다는 진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종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암시도 찾을 수 없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은유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폭력행위를 전제하는데,⁴⁷⁾ 재판정으로서의 호송이나 심지어 사형장으로서의 압송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8절에 나오는 “근육과 심문” 또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⁴⁸⁾

45) 70인역의 하반절은 “우리의 죄악”을 복수형이자 여격으로 제시하지만(직역: “우리의 죄[악]들에”), 의미상에는 차이가 없다. Kraus, “Jesaja 53 LXX im frühen Christentum – eine Überprüfung,” 159는 “죄(악)들”을 종에게 행해진 사람들의 죄(악)들로 한정함으로써 이 구절에 대리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나 설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46) Hägglund, *Isaiah 53 in the Light of Homecoming after Exile*, 66-67.

47)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고난에 대한 7-8절의 언급이 4-6절의 내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4-6절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난, 곧 (질)병이 그 고난의 형태였다면, 7-8절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 고난을 생각하게 한다.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214에 의하면, 이 차이점은 탄식시편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 묘사의 특이한 양면성에서 찾을 수 있다(사 53장의 경우처럼 고난이 질병과 박해/적대 감이라는 양면성을 보여 주는 시 22 참조). 그러나 베스테르만은 둘 중 하나를 직접적인 묘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48) Ibid., 213-214; Grimm and Dittert, *Deuterojesaja: Deutung-Wirkung-Gegenwart*,

이 모든 고난을 당한 후에 좋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음 속으로 “끌려갔다”(49)(8절). 이처럼 고난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다.⁵⁰⁾ 사후 불명예까지 겪어야 했다는 사실은 그가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공동개정』)⁵¹⁾는 말에서 드러난다(9aα절). 한

414. Zapff, *Jesaja: 40-55*, 328도 이에 동의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표상이 속죄제를 암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체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기 위함임을 강조한다.

- 49) Duhm, *Das Buch Jesaja*, 400-401은 이 동사를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다”(창 5:24; 왕하 2:3, 5, 10)로 번역한다. 즉 아웨의 종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종의 영혼만 올라갔다는 점이다(시 49:15; 73:24). 그러나 Wolff, *Jesaja 53 im Urchristentum*, 24; Grimm and Dittert, *Deuterojesaja: Deutung-Wirkung-Gegenwart*, 415 각주 21번; Baltzer, *Deutero-Jesaja*, 525가 옳게 지적하듯이,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짐”(8bα절)과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9a절)라는 언급은 승천에 대한 생각을 배제한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시 49:15; 73:24)을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

- 50) 죽음의 형태와 관련하여 Fohrer, *Das Buch Jesaja: Vol. 3: Kapitel 40-66*, 165; Fohrer,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17; Grimm and Dittert, *Deuterojesaja: Deutung-Wirkung-Gegenwart*, 415-416; Lindsey,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1983), 27-28는 바벨론식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잔혹한 죽음(‘사법 살인’)을 생각한다. 포로기 중인 이스라엘에게 사형 판결 및 집행과 같은 법적 권한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은 이스라엘 내의 적대자들(50:10-11 참조)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서 그가 한 말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신속한 승리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증언이자 제국을 위협하는 음모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셈이다.

- 51) 9aβ절은 불분명하다. 마소라 본문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의 독법을 제시한다(대하 32:33). 그렇다면 9a절은 사람들이 종의 사후에도 그를 악인들 곁에 있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부자의 무덤에 묻힐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9b절은 그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다(“왜냐하면”).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כִּשְׁכֹּשֶׁת을 동사를 첨가할 때에만 가능하다(Fischer, *Das Buch Isaia: 2. Teil: Kapitel 40-66*, 136-137의 번역: “...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부자들 곁에서 안식을 누렸으니, 왜냐하면/그 이유는 ...” 참조). 그렇기 때문에 9aα절과 9aβ절의 대구법에 상응하게 “부자” 대신 “불의한 자”로 읽는 것이 좋고, 9b절도 이에 맞게 ‘반의/상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불구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로는 Fohrer, *Das Buch Jesaja: Vol. 3: Kapitel 40-66*, 160; Fohrer,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12; Blenkinsopp,

편,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진술(9b절)로부터 우리는 그의 고난을 의인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된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한 그의 죽음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라는 점, 곧 “우리”가 그의 죽음 이후에야 새로운 통찰에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10절은 종에게 닥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두 번에 걸쳐 분명하게 언급한다(10aα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과 10b절: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야웨가 이 구원사건의 행위 주체이다.⁵²⁾ 종은 자기 생명을 이스라엘을 위한 **궤**로 내주었는데, 이것은 깨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야웨가 소위소치관계를 종에게 완전히 적용시키심으로써 그 종은 본래 유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⁵³⁾

궤는 대개 “속건제물”로 번역된다. 이와 같은 제의적 번역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12aβ절)라는 진술과 더불어 종의 희생을 대속하는 속건제로 보게 했다.⁵⁴⁾ 하지만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Isaiah 40-55, 345, 348;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72; Hermisson, “Das vierte Gottesknechtsgesang im deuterjesajanischen Kontext,” 227을 들 수 있다.

52) 그러나 종의 고난 및 죽음과 관련해서 완전히 수동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6b절과 10aα절). 수동적인 역할 외에 대리적인 희생의 관점에서 그의 능동적인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4a절과 7aα절).

53)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44;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90-91.

54) 박종수, 『바빌론 포로기와 이사야: 이사야 40-55장 주석』, 454; 한정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II: 종의 노래』, 213;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이사야 II』, 353;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216; Zapff, *Jesaja: 40-55*, 329; Fohrer,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24-27; D. Kellermann,

번역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𐤀𐤍𐤔**은 구약성서의 용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의 상황이나 빚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된 상황을 전제한다. 즉 **𐤀𐤍𐤔**에는 “유죄하게 된/빚을 지게 된 상태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의무, 빚을 갚을 의무, 채무에 대한 책임, 빚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 또는 배상 의무”⁵⁵⁾가 중요한 포인트이며, 끝까지 이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이 다양한 제사의식들에서 나타나게 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다. 야놉스키(B. Janowski)의 설명이 이를 보여 준다. 그에 의하면, **𐤀𐤍𐤔**은 “원래 (제위가 아니라) - 창 26:10; 삼상 6:3-4, 8, 17 등이 보여 주는 것처럼 - 잘못으로 인한 침해(행위)와 그에 대한 보상배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맥락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거기로부터 이 개념은 여러 중간단계들을 거치면서 시간적으로 이사야 53장 이후에 제사장적 제의 율법(레 4-5, 7장 등)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것은 채무자가 빚 청산을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배상을 해야 하는 채무 청산 의무의 상황이다.”⁵⁶⁾ 따라서 **𐤀𐤍𐤔**은 이곳에서 “빚 청산”으로 번역해야 한다.⁵⁷⁾

“**𐤀𐤍𐤔**,” *ThWAT* 1 (1973), 470; Lindsey,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1983), 32; Horst D. Preuß, *Deuterjesaja: Eine Einführung in seine Botscha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103; Wolff, *Jesaja 53 im Urchristentum*, 28; Schenker, *Knecht und Lamm Gottes (Jesaja 53): Übernahme von Schuld im Horizont der Gottesknechtslieder*, 69, 86-91; Albrecht, “Sühne und Stellvertretung in Jesaja 53,” 17-18.

55) Rolf Knierim, “**𐤀𐤍𐤔** ’āšām: Schuldverpflichtung,” 4th ed., *THAT* 1 (1984), 254.

56)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89-90. 이 개념의 발전사와 관련해서는 한동구, “속건제(Schuldopfer),” 『구약논단』 2 (1996), 107-114도 참조하라.

57) Knierim, “**𐤀𐤍𐤔** ’āšām: Schuldverpflichtung,” 251-257;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41-43;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72, 87, 88-90; Haag, “Stellvertretung und Sühne nach Jesaja 53,” 19;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110; Hermann Spieckermann, “Konzeption und Vorgeschichte des Stellvertretungsgedankens im Alten Testament,” J. A. Emerton, ed., *Congress Volume: Cambridge 1995*,

צִדִּיק에 대한 제의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목적으로 어린 숫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언급(레 14:12-13, 21, 24-25)이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숫양과 야웨의 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나병 환자의 정결을 위해서는 흠 없는 숫양을 바쳐야 했던 반면(레 14:10; 그 외 “흠 없는 숫양”에 대해서는 5:15, 18; 6:6도 참조), 야웨의 종은 결코 흠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속건제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 종의 겉모습을 나병과 연결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모습에 대한 진술들을 고려할 때 그는 제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다. 종의 경우에 흠 없음은 그가 보여 주는 특징적인 성격(9b절)에만 해당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야웨의 종은 흠 없는 숫양(לֵאֵל 레 5:15-16, 18; 6:6; 19:21; 민 5:8)이나 어린 양(עֶזְרָא 레 1:10; 3:7; 4:35) 또는 어린 숫양(עֶזְרָא 레 14:12-13, 21, 24-25)이 아니라 한 마리 양/염소(אֶחָד)와 암양/어미양(אִמָּה 창 31:38; 32:15)에 비유된다(7절). “한 마리 양/염소”(אֶחָד)는 보통 작은 가축 떼에 속한 한 마리 개별 짐승, 곧 그 가축 떼 중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가리키며, 구약성서에서는 세속적인 의미(창 30:31-32; 삼상 17:34)나 이스라엘을 위 한 은유(렘 50:17; 겔 34:17-22)는 물론이고 제의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제사법(레 1-7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후대의 덧붙임(레 5:7)을 제외 하고는 나오지 않는다.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에 대한 규정(레 22:17-25)에서도 이 단어는 흠 있는 것과 관련된 후대의 덧붙임(23절)에만 등장하며, 이어 지는 기타 제의 규정들(22:26-33)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다루는 개별 규정(28 절)에서만 나타난다.⁵⁸⁾

종의 죽음을 제의적 의미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할 근거도 없다.⁵⁹⁾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5, VT.S 66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7), 282; Thomas Söding, “Sühne durch Stellvertretung: Zur zentralen Deutung des Todes Jesu im Römerbrief,” J. Frey and J. Schröter, hg., *Deutungen des Todes Jesu im Neuen Testament*, UTB 295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org. ed. 2005), 385. 정중호, 『이사야 II』, 226는 “배상”이라는 번역을 제시한다(“만일 그가 그 자신으로 배상한다면...”).

58) Ernst-Joachim Waschke, “אֶחָד,” *ThWAT* 7 (1993), 718-721.

종의 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제사장에 의해서 제의를 위해 도살되는 희생제물의 역할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은데다가, “상함을 받게 하다”(10a절)는 동사도 제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⁶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 염소’와의 연결⁶¹⁾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곳에 “빛 청산/채무 상환”을 뜻하는 **מָחָ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 53장에 서는 죄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김으로써 멸망의 가능성이나 상태를 의식(儀式)에 따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인 희생’과 ‘죄로 인한 결과를 대신 견뎌냄’이 주제이기 때문이다.⁶²⁾ 순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여겨져서 그 속에 담긴 대속적 힘이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하는 아사라의 기도(70인역 단 3:38-40)⁶³⁾와 마카비 2서(7:37-38) 및

59)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110 각주 19번; Häggglund, *Isaiah 53 in the Light of Homecoming after Exile*, 52-67.

60)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42;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88-89. 그러나 70인역의 경우에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보인다. 유은걸, “예수의 죽음 -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 의미,” 『Canon&Culture』 2:2 (2008), 269에 의하면, 70인역 10a절(“주는 그 종이 맞은 상처를 씻기셨다”)가 마소라 본문과 크게 다른 이유는 번역자가 야웨의 종을 희생제물로 묘사하면서 모든 제물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구약의 제의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레 1:3, 10 등). 만약 이를 근거로 70인역이 ‘이사야 53장’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속죄 개념을 함께 수용한 것이라면(유은걸, 269-270), 초대교회가 이 노래를 예수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구약의 제의 전통(레 4-5장)이나 희생 염소(레 16장)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이사야 53장’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로써 이 노래의 70인역 본문이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낮아짐 및 높아짐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그의 대리적 희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후에 마소라 본문이 이를 위한 중요성을 획득하면서 예수의 죽음의 구원론적 해석에 추가되었다고 하는 Kraus, “Jesaja 53 LXX im frühen Christentum - eine Überprüfung,” 149-182의 주장도 동시에 거부된다.

61) Lothar Ruppert, “Schuld und Schuld-Lösen nach Jesaja 53,” G. Kaufmann, hg., *Schulderfahrung und Schuldbewältigung: Christen im Umgang mit der Schuld* (Paderborn et al.: Schöningh, 1982), 27-28, 33-34.

62) Janowski,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42-43;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89.

4서(1:11; 6:28-29; 17:20-22)를 함께 고려하여 야웨의 종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속죄를 가져온 순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율법 준수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즉 그의 첫 등장부터 그는 이미 그의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무시와 경멸을 당했다.⁶⁴⁾ 요컨대, 종의 행위는 죽음에까지 이른 비제의적, 대리적 고난이었다.

2.4. '야웨 진술'(53:11aβ-12)

두 번째 '야웨 진술'에 따르면, “의로운 종”은 많은 사람,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롭게 할 것이다(11aβ절).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때문에 (11b절)⁶⁵⁾ 그는 한편으로 그들을 야웨 앞에서 용서 받은 사람들 또는 의롭게 된 사람들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고(50:4-9, 특히 8절 참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그들을 의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다.⁶⁶⁾ 간접적으로 암시되지만 하는 종의 복권(12aα절)이 뒤이어 설명되는데⁶⁷⁾, 12aβ절에서는 그의 사역의 내용(“무엇?”)과 방법(“어떻게?”)이, 12b절에서는 그 사역의 목적(“무엇을 위해?”)이 야웨의 말씀을 통해 확정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제시된다. 이때 그의 대리적 고난과 중보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된다(“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⁶⁸⁾. 그러나 이로써 의도된 바는, 그가 단

63) Haag, “Stellvertretung und Sühne nach Jesaja 53,” 17.

64) 앞의 각주 27번도 참조하라.

65) 앞의 설명에 근거해볼 때(2.3. ‘우리 진술’), 『새번역』이 보다 정확한 번역을 제시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66) Fischer, *Das Buch Isaías. 2. Teil: Kapitel 40-66*, 138; Zapff, *Jesaja: 40-55*, 330; Blank,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53),” 73-74; Haag, “Stellvertretung und Sühne nach Jesaja 53,” 15.

67) 70인역(“그는 직접 많은 사람들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며, 강자들의 노획물들을 나누어 줄 것인데”)은 통치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 기도의 형태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죽음, 곧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전 존재로 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⁶⁹⁾ 요컨대, 죄로 인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죄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해방시키고 아웨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49:5-6)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운명을 대신 짊어진 종의 대리적 고난과 희생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웨의 종’의 본질적 특징이다.

3. ‘이사야 53장’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아웨의 종의 ‘대리적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결국 무엇인가? 무죄하고 의로운(9b, 11a.b절) 한 사람(=아웨의 종)이 다른 사람들(=우리)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았다는 것이다(4b-5, 11b-12절).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겪은 고난이었으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4a, 11b, 12b절)이자 아웨의 계획(6b, 10aα, b절)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드러나는 능동적인 희생과 수동적인 고난의 수용이라는 중요한 연관관계이며⁷⁰⁾, 바로 이

68) Baltzer, *Deutero-Jesaja*, 541에 의하면, 12bα절의 동사 “담당하다”(נָשָׂא)는 현재완료형으로서 과거에 종결된 행위를 가리키고, 12bβ절의 동사 “기도하다/투입되다”(יָרָא)는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적인 행위를 뜻하여 “그는 반복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투입되었다”를 의미하거나 미래적인 사건을 예고하여 “그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투입될 것이다”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종의 과거 행위에 대한 회상으로, 후자는 새로운 과제의 예고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108 각주 6번은 ‘נָשָׂא(히렐)+וּ+인물’의 용법이 간청하는 중보가 아니라 죄과 및 그에 따른 형벌을 대신 떠맡는 실존적 대리라고 설명한다.

69) 70인역에서도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그리고 그는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졌고, 그들의 죄들 때문에 넘겨졌다”).

연관성이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삶과 사역을 각인시켰다. 그렇다면 무엇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야웨의 종'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했을까? 호피우스(Hofius)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고 있다.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는 (신약성서 내의[필자의 보충]) 어떤 구절에서도 단순히 본래의 의미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래의 진술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보다 심오한 관점 안으로 편입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⁷¹⁾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경우에 특히 '대리'라는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ⲙⲁⲛⲓ 개님 자체나 “그의 영혼을 (ⲙⲁⲛⲓ으로) 드리기”(10aβ절)라는 표현이 대리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 53장의 전체 문맥은 야웨의 종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당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과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아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 ‘낮선 빛’, 곧 타인의 빛을 청산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당한 고난과 유죄한 그들을 형벌로부터 막아주고 구해 준 구원사역 사이에는 그 내적-논리적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미처 설명되지 않은 틈새가 있다. 이사야 53장에서의 대리행위는 유죄한 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야웨의 종이 대신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대리적 고난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본래 당했어야 하는 형벌로서의 고난을 종의 대리적 희생으로 인해 피해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가? 인간의 실존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죄의 문제가 이로써 설명되고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과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실존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 죄인 됨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지

70) Bernd Janowski, “»Hingabe« oder »Opfer«?: Zur gegenwärtigen Kontroverse um die Deutung des Todes Jesu,” Erhard Blum, ed., *Minch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114.

71)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127.

못한다는 뜻이다.⁷²⁾ 그러면 이 틈새는 메울 수 없는 것인가? 즉 인간의 대리를 통한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한가? 초대교회는 예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하여 이 질문에 답을 주어야 했다. 이사야 53장이 노래하는 종의 운명은 분명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했지만, 죄로 인한 벌을 대신 받는 ‘대리적 고난’만으로는 부족했다.

야웨의 종과 그리스도의 대리행위 사이에 미세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대리’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분명해진다. ‘대리’(Stellvertretung[독]/Place-taking[영])⁷³⁾는 항상 두 주체, 곧 ‘대리하는 사람’(=대리자)와 ‘대리되는 사람’(=대리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 대리자와 대리의 대상 사이의 상호연관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이다. 대리자의 현존 또는 활약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대리되는 사람의 현존 또는 활동과 연결된다. 이때 대리의 형태는 실제로 다양하다.⁷⁴⁾ 대표적으로 ‘배제하는 대리’(exkludierende Stellvertretung[독]/exclusive place-taking[영])와 ‘포함하는 대리’(inkludierende Stellvertretung[독]/inclusive place-taking[독])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본원칙은, ‘대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자신이 대리하는 그 사건에 포함 또는 연루되는 연관성을 갖는가 의 유무(예: 그리스도[유] / 변호사[무]) 또는 ‘대리되는 사람’의 관점에서

72) 죄의 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성호, “그리스도의 종말 심판 대리 십자가 죽음의 관계: 로마서 8장 31-34절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 (2016), 192-197 참조.

73)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리’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다. ‘대리’를 가리키는 단어의 역사는 실제로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물론이고 이미 구약성서에도 대리적 측면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Park,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im Geri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tellvertretung und Kreuzestod Jesu bei Paulus*, 34(각주 3번 포함); Janowski,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schen Grundbegriff*, 21-27 참조.

74) Stephan Schaefer, *Stellvertretung: Begriffsgeschichtliche Studien zur Soteriologie*, BHT 126 (Tübingen: Mohr Siebeck, 2004), 7-270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독일어 단어 Stellvertretung의 선구자적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라틴어 개념들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리의 다양한 측면들과 상호간에 미세한 차이들이 잘 드러난다.

볼 때 자신이 대리자의 대리행위 속에 포함 또는 연루되는 연관성을 갖는가의 유무(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유] / 빛을 탕감 받은 채무자[무])이다.⁷⁵⁾

이와 같은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의 대리행위를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대리사상은 '배제하는 대리'로 규정된다. 아웨의 종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과에 따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진다. 이를 위해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지만, 그가 유죄한 “우리”의 삶의 조건들과 죄로 인한 실존적 위기상황에 어떤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형벌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 곧 죄로 규정된 실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죄가 보다 깊은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 주며, 그렇기에 ‘배제하는 대리’는 인간 전체를 규정하는 ‘인격적 죄’로서의 죄 이해가 전제되는 곳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사람에게 붙어 있는 ‘어떤 것’이나 반사회적 태도 또는 실수와 같은 ‘어떤 행위’에 불과해서 - 스스로의 힘으로든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든 - 물건을 들어서 옮기듯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직접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중심을 사로잡은 채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특징짓고, 그의 존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기 때문이다(시 51:5 참조).⁷⁶⁾

75) ‘배제하는 대리’: 한 사람(=대리자)이 다른 사람(=대리의 대상)을 위해 투입되어 그(=대리의 대상)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결한다. 이때 대리자는 대리되는 사람의 삶의 조건들이나 위기상황에 직접 연관될 필요가 없다.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좋은 예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면서도 직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의 배타적 측면을 말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열 두 제자 그룹에 새로 포함된 맛디아가 좋은 예이다(행 1:15-26). - ‘포함하는 대리’: 한 사람(=대리자)이 다른 사람(=대리의 대상)을 위해 투입되어 그(=대리의 대상)가 반드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해결한다. 이때 대리자는 대리되는 사람의 위기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리의 대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76)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사야 53장의 종의 대리적 희생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가져오는 형벌의 고난(‘소위소치관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야웨의 종’의 대리적 고난)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 사건은 죄인을 인격체로서 직접 포함하며 실존적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포함하는 대리’이다(롬 4:25; 5:15-19; 10:14-17; 15:20-21; 고전 15:3-5; 고후 5:21; 히 9:28; 벡전 2:21-25; 3:18). 초대교회가 이처럼 이사야 53장의 종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로 ‘심화시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위해 개입하여 그들을 대신하셨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예수는 이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⁷⁷⁾ 그는 단지 죄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당할 형벌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함으로써(고후 5:21; 갈 3:13) 그들을 죄라는 치명적인 실존적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요일 4:9-10).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관계의) 복구’가 아니라 ‘새 창조’, 곧 죄인인 인간이 이전까지 결코 소유한 적이 없었던 온전하고 새로운 존재의 확립이다.⁷⁸⁾ 이러한 통찰과 확신에 근거하여

112-113.

77)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야웨(하나님)과 그의 종의 관계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 즉 그를 도구로 삼아 활동하신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현존 그 자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종이 감당해야 할 일로 만드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 자신의 일로 삼으신다. ‘종의 노래’는 야웨와 종의 관계에 근거하여 둘 사이의 행위의 통일성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야웨의 행위와 종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반면, 그리스도 사건에서는, 구원론적 진술들에 나타나는 주어의 변화(하나님⇔ 아들/그리스도)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행위의 통일성이 부각된다(예: “하나님의 심판대”[롬 14:10]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후 5:10]).

78) Hofius,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114-117.

초대교회는 이사야서의 야웨의 종의 '배제하는 대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원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포함하는 대리'의 해석에 이르게 되었다.⁷⁹⁾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가 담고 있는 대리 진술을 그 안에 통합하면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⁸⁰⁾

나가는 말: 의미와 전망

구약성서의 유효성과 구속력은 초대교회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성서는 예수의 선포와 활동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 이후 메시지를 위한 근본적인 전제였다.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에서 사용되는 집중도는 문서들마다 다양하지만, 내적-암시적 연관성은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구약성서가 사건의 전제이면서 사상적 재료와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규정했다는 뜻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사건을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이해하였고, 구약성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⁸¹⁾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였다. 이 노래의 본래 의미와 초대교회의 (재)해석을 통해 드러났듯이,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노래를 인용하거나 암시했던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구약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야와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그 신학적 깊이가 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 대한 주석 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관계성을 통해 확인된 바에 근거하여 구약성서가 갖는 의미를

79) 신약에 나타나는 이사야 53장의 직접적 인용과 간접적 암시들(각주 20번 참조)은 그와 같은 (재)해석 과정의 결과이다.

80) 2-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론을 확립한 처음교회의 상황과 바울이 남겨 놓은 서신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해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신학적 통찰력이 뛰어났음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81)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58-60.

축소할 이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구약성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심화시켰다는 사실이 구약 본문의 본래 의미에 어떤 결핍이나 불완전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초대교회가 보여 준 신학적 깊이와 탁월함은 구약성서와 초기 유대교 전통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표상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그들의 해석에 있다. 부활 사건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이사야 53장의 노래뿐만 아니라 제의전통(레 4-5장)이나 희생 염소(레 16장)와 같은 본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구약 전체를 통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해석’(Interpretatio Christiana)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의 모든 역사적 활동 그리고 토라 및 예언자들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사건의 문맥 속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약성서의 본문들을 먼저 꼼꼼하게 연구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밝혀냄과 동시에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구약 본문들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제시하면서 둘을 서로 연결할 때에만 비로소 두 성서의 통일성과 상호관계를 바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 해석’은 “두 성서의 상관성을 위한 독특한 표현”⁸²⁾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구약학과 신약학의 협업 및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82)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139.

<주요어>

(야웨의)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야웨의) 종, 대리, 구약성서, 기독교적 해석,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Key Words>

Song of the Servant (of Yahweh), Isaiah 53, Servant of Yahweh, Place-taking, Old Testament, Interpretatio Christiana/Christian Interpretation, Early Church, (Jesus) Christ

* 접수일 2017년 3월 30일, 수정일 2017년 4월 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4월 5일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성경전서 개역개정』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mit Apokryph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9.
- 김상기, “시편 73편: 소위소치관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연구』 55 (2009), 8-48.
- 김창주, “유대교와 이사야 53장: 의인의 대속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까?” 『신학사상』 121 (2003), 101-131.
- 모이세, 스티브, 『신약의 구약 사용 입문: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에 대한 해석』, 김주원 역, 서울: CLC, 2011.
- 박성호, “그리스도의 종말 심판 대리 and 십자가 죽음의 관계: 로마서 8장 31-34절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 (2016), 187-228.
- 박종수, 『바빌론 포로기와 이사야: 이사야 40-55장 주석』,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이사야 II』,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송창현, “쿰란 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3): 쿰란의 고난 받는 메시아,” 『성서와 함께』 372 (2007), 92-101.
- 송창현, “쿰란의 이사야서 사본과 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20 (2007), 30-51.
- 유은결, “예수의 죽음 -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 의미,” 『Canon&Culture』 2:2 (2008), 251-282.
- 정중호, 『이사야 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조경철, 『신약성서신학』,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 한동구, “속건제(Schuldopfer),” 『구약논단』 2 (1996), 105-132.
- 한정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II: 종의 노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Aland, Barbara,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Institute for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Münster/Westphalia under the direction of Holger Strutwolf,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Elliger, Karl and Rudolph, Wilhelm,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5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
- Rahlfs, Alfred, ed., *Septuaginta*, Editio minor, Duo volumina in uno,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org. ed. 1935.
- Albrecht, Ralf, "Sühne und Stellvertretung in Jesaja 53," *JETH* 12 (1998), 7-24.
- Baltzer, Klaus, *Deutero-Jesaja*, KAT 10: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9.
- Blank, Josef,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 53)," Mahoney, Robert, hg., *Studien zur biblischen Theologie*, SBAB 13,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2, 37-95.
- Blenkinsopp, Joseph, *Isaiah 40-55*, AncB 19A, New York et al.: Doubleday, 2000.
- Blum, Erhard, "Der leidende Gottesknecht von Jes 53: Eine kompositionelle Deutung," Gehrig, Stefan and Seiler, Stefan, hg., *Gottes Wahrnehmungen*, Stuttgart: Kohlhammer, 2009, 138-159.
- Dell, Katharine J., "The Suffering Servant of Deutero-Isaiah: Jeremiah Revisited," Dell, K. J. and Davies, G. and Koh, Y. V., eds., *Genesis, Isaiah and Psalms: A Festschrift to Honour Professor John Emerton for His Eightieth Birthday*, VT.S 135, Leiden-Boston: Brill, 2010, 119-134.
- Duhm, Bernhard, *Das Buch Jesaja*, 5th ed., HK 3. Abt. Die prophetischen Bücher Vol.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Fischer, Johann, *Das Buch Isaias, 2. Teil: Kapitel 40-66*, HSAT 7(1. Abt./2. Teil), Bonn: Hanstein, 1939.
- Fohrer, Georg, *Das Buch Jesaja, Vol. 3: Kapitel 40-66*, ZBK.AT 19/3, Zürich-Stuttgart: Theologischer Verlag, 1964.

- Fohrer, Georg, “Stellvertretung und Schuldopfer in Jesaja 52:13-53:12 vor dem Hintergrund des Alten Testaments und des Alten Orients,” Rieger, Paul, hg., *Das Kreuz Jesu: Theologische Überlegungen*, Forum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7-31.
- Goulder, Michael D., “Behold My Servant Jehoiachin,” *VT* 52 (2002), 175-190.
- Grätz, Sebastian, “Die unglaubliche Botschaft: Erwägungen zum vierten Lied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SJOT* 18 (2004), 184-207.
- Grimm, Werner and Dittert, Kurt, *Deuterojesaja: Deutung - Wirkung - Gegenwart*,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Calwer Verlag, 1990.
- Haag, Ernst, “Stellvertretung und Sühne nach Jesaja 53,” *TThZ* 105 (1996), 1-20.
- Häggglund, Fredrik, *Isaiah 53 in the Light of Homecoming after Exile*, FAT II/3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Hahn, Ferdinand,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1: Die Vielfalt des Neuen Testaments*, 3rd ed., UTB 3500,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Hahn, Ferdinand,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2: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3rd ed., UTB 3500,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Hengel, Martin, “Jesus der Messias Israels,” Hengel, M. and Schwemer, A. M., *Der messianische Anspruch Jesu und die Anfänge der Christologie: Vier Studien*, WUNT 138, Tübingen: Mohr Siebeck, 2003; org. ed. 2001, 1-80.
- Hengel, Martin, “Zur Wirkungsgeschichte von Jes 53 in vorchristlicher Zeit,” Janowski, Bernd and Stuhlmacher, Pet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49-91.
- Hengel, Martin and Schwemer, Anna M., *Jesus und das Judentum*, Geschichte

- des frühen Christentums 1,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Hengel, Martin and Schwemer, Anna M., *Paulus zwischen Damaskus und Antiochien: Die unbekannten Jahre des Apostels*, Mit einem Beitrag von Ernst Axel Knauf, WUNT 108, Tübingen: Mohr Siebeck, 2000; org. ed. 1998.
- Hermisson, Hans-Jürgen,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m deuter-
ojesajanischen Kontext," Barthel, J. and Jauss, H. and Koenen, K.,
hg.,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Gesammelte Aufsätze*, FA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20-240.
- Hermisson, Hans-Jürgen, "Israel und der Gottesknecht bei Deuterjesaja,"
Barthel, J. and Jauss, H. and Koenen, K., hg., *Studien zu Prophetie
und Weisheit: Gesammelte Aufsätze*, FAT 23, Tübingen: Mohr
Siebeck, 1998, 197-219.
- Höffken, Peter,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NSK.AT 18: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8.
- Hofius, Otfried, "Das vierte Gottesknechtslied in den Briefen des Neuen
Testaments," Janowski, Bernd and Stuhlmacher, Peter, hg., *Der lei-
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07-127.
- Janowski, Bernd, "Er trug unsere Sünden: Jesaja 53 und die Dramatik der
Stellvertretung," Janowski, Bernd and Stuhlmacher, Pet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27-48.
- Janowski, Bernd, "»Hingabe« oder »Opfer«?: Zur gegenwärtigen Kontroverse
um die Deutung des Todes Jesu," Blum, Erhard, hg., *Minch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93-119.
- Janowski, Bernd, *Stellvertretung: Alttestamentliche Studien zu einem theologi-
schen Grundbegriff*, SBS 165,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7.

- Kellermann, D., “אֲשָׁם,” *ThWAT* 1 (1973), 463-472.
- Knierim, Rolf, “אֲשָׁם 'āšām: Schuldverpflichtung,” 4th ed., *THAT* 1 (1984), 251-257.
- Koch, Dietrich-Alex, *Die Schrift als Zeuge des Evangeliums: Untersuchungen zur Verwendung und zum Verständnis der Schrift bei Paulus*, BHTh 69, Tübingen: Mohr, 1986.
- Kraus, Wolfgang, “Jesaja 53 LXX im frühen Christentum - eine Überprüfung,” Kraus, W., hg., *Beiträge zur urchristlichen Theologiegeschichte*, BZNW 16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149-182.
- Lindsey, F. Duane,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BS* 139 (1982), 312-329; 140 (1983), 21-39.
- Litwak, Kenneth D., “The Use of Quotations from Isaiah 52:13-53:12 in the New Testament,” *JETS* 26 (1983), 385-394.
- Park, Sung-Ho,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im Geri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tellvertretung und Kreuzestod Jesu bei Paulus*, WMANT 1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2015.
- Plümacher, Eckhard, “Bibel: II. Die Heiligen Schriften des Judentums im Urchristentum,” *TRE* 6 (1980), 16-19.
- Preuß, Horst D., *Deuterjesaja: Eine Einführung in seine Botscha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 Ruppert, Lothar, “«Mein Knecht, der gerechte, macht die Vielen gerecht, und ihre Verschuldungen - er trägt sie»(Jes 53:11): Universales Heil durch das stellvertretende Strafleiden des Gottesknechtes?” *BZ* 40 (1996), 1-17.
- Ruppert, Lothar, “Schuld und Schuld-Lösen nach Jesaja 53,” Kaufmann, Gisbert, hg., *Schulderfahrung und Schuldbewältigung: Christen im Umgang mit der Schuld*, Paderborn et al.: Schöningh, 1982, 17-34.
- Schaede, Stephan, *Stellvertretung: Begriffsgeschichtliche Studien zur Soteriologie*, BHTh 126,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Scharbert, Josef, *Heilsmittler im Alten Testament und im Alten Orient*, QD

23:24, Freiburg·Basel·Wien: Herder, 1964.

Schenker, Adrian, *Knecht und Lamm Gottes (Jesaja 53): Übernahme von Schuld im Horizont der Gottesknechtslieder*, SBS 19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1.

Söding, Thomas, "Sühne durch Stellvertretung: Zur zentralen Deutung des Todes Jesu im Römerbrief," Frey, J. and Schröter, J., hg., *Deutungen des Todes Jesu im Neuen Testament*, UTB 2953, Tübingen: Mohr Siebeck, 2007; org. ed. 2005, 375-396.

Spieckermann, Hermann, "Konzeption und Vorgeschichte des Stellvertretungsgedankens im Alten Testament," Emerton, John A., ed., *Congress Volume: Cambridge 199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5*, VT.S 66,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7, 281-295.

Steck, Odil H., "Aspekte des Gottesknechts in Jes 52:13-53:12," *ZAW* 97 (1985), 36-58.

Stuhlmacher, Peter, "Jes 53 in den Evangelien und in der Apostelgeschichte," Janowski, Bernd and Stuhlmacher, Peter, hg., *Der leidende Gottesknecht: Jesaja 53 und seine Wirkungsgeschichte mit einer Bibliographie zu Jes 53*, FAT 14, Tübingen: Mohr Siebeck, 1996, 93-105.

Waschke, Ernst-Joachim, "תַּשִּׁי," *ThWAT* 7 (1993), 718-721.

Watts, John D. W., *Isaiah 34-66*, 2nd ed., WBC 25, Nashville et al.: Nelson, 2005.

Westermann, Claus,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Wolff, Hans W., *Jesaja 53 im Urchristentum*, Mit einer Einführung von Peter Stuhlmacher, 4th ed., Giessen·Basel: Brunnen-Verlag, 1984.

Zapff, Burkard M., *Jesaja: 40-55*, NEB.AT 36, Würzburg: Echter Verlag, 2001.

<초록>

고난 받는 종 예수

-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사 52:13-53:12)에 대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적 해석(*Interpretatio Christiana*) -

박성호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성경’(聖經=현재의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및 구원 역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언과 약속이 예수의 인격 및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이 ‘성경’을 다른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예수의 부활-승천 후 불과 2-3년 안에 기독교론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구약성서의 다양한 표상과 사상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이사야서의 네 번째 ‘야웨의 종의 노래’(사 52:13-53:12)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였다. 이 ‘종의 노래’는 이미 구약 안에서도 독특한 점을 보여 주는데, 이는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상 때문이었다. ‘소위소치관계’에 따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을 야웨는 자기 종이 받도록 하였고, ‘종’은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대속**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듯이, 종의 대리적 고난은 제의적 대속이 아니었다. 특히 그가 겪은 운명은 그가 대신한 이들의 실존적 상황, 곧 죄로 점철되고 죄의 규정을 받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위기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죄인인 인간의 실존을 근본적

으로 규정하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해결된다고 믿었던 초대교회로서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 이사야 53장을 보다 깊이 있게 숙고해야 했다. 즉 초대교회는 이사야 53장을 본래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심화시켜 해석했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죄로 인한 결과를 대신 지는 것을 넘어서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기독교적 해석'은 이처럼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학적 통찰력을 보여 주며, 더 나아가 구약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일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사건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연결시키는 작업이 성서학의 주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Abstract>

The Suffering Servant Jesus:

Christian Interpretation (*Interpretatio Christiana*) of the Early Church on the Fourth Servant Song (Isa 52:13-53:12)

Dr. Sung-Ho Par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Early Church, realizing that the creation and salvation history of God and the prophecy and promise related to it must be connected to the person and the works of Jesus, began to read the Holy Scripture (=our Old Testament) with a new perspective. While christology was being established within 2-3 years after the resurrection and assumption of Jesus, the Early Church explained the soteriological meaning of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by (re-)interpreting various imageries and ideas of the Old Testament in a new way. During this process the fourth Servant Song of Isaiah (Isa 52:13-53:12) was an important key to illustrate the signification of the death on the cross. This song had already been unique in the Old Testament because of the idea that one suffers for other(s). Yahweh burdened his servant with the results of Israel's sins which Israel deserved to bear, and the servant quietly accepted it. He suffered for the "many" ("we"). But as the whole song—especially the word מָוֶן—shows us, the suffering of the servant was not a ritual atonement. Moreover, his fate did not (and could not) resolve the existential condition of those for whom he suffered, that is, the existential

crisis of a human (being) who had been fraught with and controlled by sin and was unable to escape from it on his/her own. The Early Church which believed that this problem of sin was solved with/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had to reflect on the Servant Song more deeply. That is, the Early Church was not satisfied with accepting the original meaning of Isaiah 53, but intensified it theologically and interpreted in a new way. Doing so, the death of Christ has been explained as an event which does not just take the results of sin away, but brings the fundamental liberation from the sin. This way, 'Christian Interpretation' shows us a remarkable theological insight of the Early Church. And furthermore, it reminds us that the main task of biblical studies is to discover the original meaning of the Old Testament, interpret the Old Testament on the basis of the revelation named 'Jesus Christ', and always connect these two things.

